

광주·전남, 코로나19 4개월 만에 최다... '시소 확진' 옛말

사흘 연속 신규 두 자릿수 확진 행진, 누적 3700여 명

광주·전남 번갈아 이어진 확진세 잡고 동시다발 확산

유흥·요양시설·학교·콜센터·도심 교회·공공기관까지

광주시, 15일 민관공동대책위 소집 거리두기 논의키로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례적으로 동시 확산되면서 일일 확진자수가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에서 전남, 전남에서 광주로 약속이나 한 듯 번갈아가며 확산세를 이어오던 '시소 확진세'가 유흥시설과 학교, 콜센터, 공공기관, 교회 등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심상찮은 감염세에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광주가 22명, 전남이 17명으로 광주·전남 합

쳐 39명이 새로 감염됐다.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n차 감염이 폭발했던 지난 1월29일 59명(광주 54, 전남 5명) 이후 104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특이한 점은 광주와 전남 모두 두 자릿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와 전남 모두 지난 10일 이후 사흘 연속 두 자릿수 확진이다. 이날 오전에도 광주에서 16명, 전남에서 5명이 추가 발생해 확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정의달 행사를 전후로 산발적 감염과 '조용한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고위험시설인 유흥 관련 업소에 영업주·종사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확산세 꺾기와 감염경로 파악에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요양시설은 물론이고 일선 학교와 콜센터, 도심 교회, 공공기관 등 한 번 터지면 대규모로 번지기 쉬운 코로나19 취약지대에서 산발적 전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해 2월 초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역을 번갈아가며 집단 또는 다발성 감염을 보여왔다.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광주에서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과 요양병원발 대유행이 발생했을 당시 전남은 대부분 한 자릿수 확진세를 보였고, 2~3월에 광주 상무지구 보현사 콜센터 발(發) 대규모 확진이 이어질 때 전남지역 일일 확진자는 1~2명에 그쳤다.

거꾸로 지난 5일 전남 고흥에서 공직자를 중심으로, 전남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4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당시 광주는 9명에 머물렀다. 이어 지난 8일 여수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전남에서 다시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 광주지역 신규 확진자는 6명을 기록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조용한 전파와 무증상, 가족간 감염과 지인과의 모임을 통한 n차 감염 등이 정선없이 터져 연결고리 파악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으로 긴장감이 떨어지는 사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고 개개인의 각별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주일 동안 광주지역 1일 평균 확진자가 13.4명으로, 앞선 1주일(4월28일부터 5월4일) 6.8명의 2배에 이른 점에 주목, 오는 15일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12일 오후 2시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56명, 전남은 1195명으로, 광주·전남 합쳐 3751명에 이른다. 광주 확진자의 94%, 전남 93%는 지역 내 감염 사례들이다. 광주 2700여 명, 전남 2020여 명이 격리 중이며, 광주 6800여 명, 전남 2000여 명은 검사 중이다.

기동취재본부



간호사들의 외침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서울 중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간호사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택시기사에 마스크 벗어라 행패, 경찰관 뺨 후려친 50대 실형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귀가를 요청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께 광주 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고 말하며 40분 동안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안경을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왜 (택시에서) 내려야 하느냐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바다로 드라이버샷 날린 40대들... '쓰레기 왜 버려?' 과태료

40대 2명, 어버이날 고흥서 드라이버샷 즐기다 적발 동영상 찍던 인근 주민 '해도 너무한다' 경찰에 신고



8일 전남 고흥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바닷가에서 40대 2명이 바다를 향해 드라이버샷을 하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푸른 파도 일렁이는 남해 바다를 향해 멋진 드라이버샷을 날리던 40대 2명이 자연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따르면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께 40대 2명이 전남 고흥군 봉래면 정암대학 연수원 뒤 바닷가에서 번갈아가면서 드라이버샷을 날렸다. 오후 7시 10분까지 약 30분간 샷은 이어졌

다. 이들이 바다에 놓은 낚시공은 타격음과 함께 어김없이 바다를 향해 날아갔고 수면위에 닿자마자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들의 모습을 보다 못한 인근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들은 인적사항과 바닷가에서 드라이버샷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주민이 경찰에 제시한 촬영 사진과

동영상에는 자세를 제대로 잡아가며 드라이버 샷을 하는 장면과 골프공이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이들이 샷을 날린 장소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할 구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측에 사건을 넘겼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외지인과 현지인이 보호해야 할 자연 앞에서 오염물을 바다에 투척하는 행위는 과태료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쓰레기나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적발보고서는 12일 관할 행정기관 고흥군으로 전송됐다. 과태료 부과는 고흥군이 담당하게 된다.

인근 주민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고 혀를 찼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드문 사례이지만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사실은 맞기 때문에 적발했으며, 과태료는 관할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